



광주시체육회는 25일 광주시청의 기보배·이특영·최민선·김소연 조가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 싱글라운드 단체전에서 4154점을 기록해 한국기록(4134점)을 13년만에 경신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소현·김소연·박재순 감독·최민선·이특영·기보배.

광주시청 양궁팀, 단체전 한국기록 13년만에 경신

비공인 세계기록도 12년만에 갈아 치워

광주시청 기보배와 이특영·최민선·김소연이 양궁 단체전 한국기록을 13년만에 갈아치웠다. 광주시체육회는 25일 기보배·이특영·최민선·김소연 조가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 싱글라운드 단체전에서 4154점을 기록해 단체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이 기록한 점수는 2004년 충북 전국체전에서 전북도청이 세운 한국신기록 4134점을 20점 앞섰다. 이 기록은 지난 2005년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에서 국가대표선수단이 세운 세계신기록 4129점을 12년 만에 갈아치웠지만 싱글라운드 경기가 국제대회에서 폐지돼 비공인 기록으로 남게됐다.

또 기보배는 개인전에 출전해 50m에서 348점으로 대회 타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2015광주하계U대회 이후 광주에서 처음 열린 대통령기 대회에서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며 "대회를 통해 한국양궁의 명맥을 이을 훌륭한 선수가 많이 배출될지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펜싱 여자사브르 대표팀, 세계선수권 단체전 사상 첫 銀

김지연·서지연·윤지수·황선아, 결승서 패해



2017 세계선수권 단체전 은메달을 땀낸 여자 사브르 대표팀.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2017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연(익산시청), 서지연·윤지수(이상 안산시청), 황선아(익산시청)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에 27-45로 패하며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비록 금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이번 은메달은 기대 이상의 성과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45-32로 승리하며 결승전에 올랐다.

과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땀겼다. 전날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금메달에 이어 여자 사브르 대표팀까지 은메달을 거머쥐면서 2018 자카르타시안게임과 2020 도쿄올림픽에서의 전성기를 보였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에서 중국을 45-27로 꺾었고 미국과의 8강전을 접전 끝에 45-41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한일전으로 펼쳐진 준결승전에서 한국은 45-32로 승리하며 결승전에 올랐다.

팀 랭킹 1위인 이탈리아는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점수를 쌓았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 역시 사력을 다했지만 이탈리아의 벽은 높았다. 한편 박상영(한국체대), 박경두(해남군청), 권영준(익산시청), 정진선(화성시청)이 나선 남자 에페 대표팀은 16강전에서 에스토니아에 38-39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9~16위 순위전을 거쳐 진출한 9·10위 결정전에서 체코를 45-35로 누르고 9위로 대회를 마쳤다. 뉴시스

괴력의 조나탄, K리그 두 경기 연속 MVP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절정의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는 수원 삼성 외국인 선수 조나탄이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MVP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라운드에 이어 2연속 수상이다. 조나탄은 지난 2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덕분에 수원은 초반 부진을 딛고 5연승을 달렸다. 조나탄은 최근 4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시즌 20경기에 출전해 18골(3도움)을 넣어 득점왕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2013년 K리그 클래식이 출범한 이래 2경기 연속 MVP에 선정된

뉴시스

“K리그 전반기 볼거리 많았다”...하루에 22골 골 폭풍

조나탄, 4경기 연속 멀티골 · 황선홍 감독, 최연소 150승 달성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전반기를 마치고, 짧은 휴식기에 들어갔다. 팀당 23라운드를 마쳤다. 뜨거운 열기만큼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졌다. 조나탄(수원)은 프로축구 최초 4경기 연속 멀티골을, 윤산은 프로출발 후 통산 500승을 고지에 올랐다.

◇조나탄 ‘4경기 연속 멀티골’...데얀 ‘6번째 헤트트릭’

올 시즌 가장 핫한 선수는 단연 조나탄(수원)이다.

조나탄은 올 시즌 K리그 최초 4경기 연속 멀티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프로축구가 1983년 출범한 후 34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종전 연속 멀티골 기록은 2001년 김도훈, 2011년 데얀이 기록한 3경기였다.

조나탄은 지난 12일 인천전(2골), 15일 포항전(2골), 19일 전남전(3골), 23일 상주전(2골)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다.

조나탄과 함께 득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데얀도 개인 통산 6번째 헤트트릭 기록을 쌓으며 9시즌 연속 두자리수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데얀은 지난 19일 인천전에서 자신의 여섯 번째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2008년, 2010년에 각각 한번씩 헤트트릭을 기록한 데얀은 2011년 두 번, 2013년과 올 시즌에 다시 한번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K리그를 통틀어 6번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들은 데얀과 김도훈, 사사 3명이다. 또 데얀의 이번 헤트트릭은 K리그 통산 최고령 선수 헤트트릭(35세 11개월 22일)에 해당한다. 기존 기록의 보유자는 김도훈(35세 1개월 10일)이었다.

◇전북, ‘슈팅 가장 많이 때리고 많이 넣었다’

전북은 올해 K리그 클래식 23경기에서 슈팅을 322회나 때렸다. 12개 팀 중 최다 기록이다. 이 중 유효슈팅은 171회였다.

이 가운데 43개를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2위는 울산으로 총 289회(유효 150회)의 슈팅을 기록했다. 최다슈팅을 기록한 선수는 울산의 오르사(80회)다. 그 뒤로 조나탄(79회)과 양동현(포항, 67회) 순이다.

특히 전북의 로페즈는 클래식 역대 최단시간 득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로페즈는 지난 16일 상주전에서 전반 시작 18초만에 골



을 넣으며 클래식 역대 최단시간 득점 2위에 올랐다.

클래식에서 최단시간 골은 2013년 10월5일 포항-수원전에서 수원 최광선이 17초만에 기록한 자책골이다. 한편 프로축구를 통틀어 최단시간 골 기록은 2007년 5월23일 인천-포항전에서 인천의 방승환이 11초만에 기록한 골이다.

또한 올 시즌은 유난히 후반 막판 골이 많이 나왔다. 이번 시즌에 후반 40분 이후 터진 골은 총 47골이다. 전체 371골 중 무려 12.7%다. 후반 40분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은 서울 포항 제주. 수원으로 각각 6골씩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후반 추가시간에만 5골을 넣으며 막판 무서운 뒷심을 자랑했다.

지난 19일 열린 22라운드 6경기에서는 무려 22골이 터지며 올 시즌 하루 최다골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수원의 조나탄과 서울의 데얀이 동시에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K리그 클래식 최초로 하루에 두 번 헤트트릭이 나오는 진기록도 달성했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7월에 열린 K리그 클래식 36경기에서는 총 108골이 터지며(평균 3.00골) 풍성한 골 잔치가 벌어졌다.

◇울산 ‘통산 500승’...황선홍 감독 최연소 150승 달성

울산은 지난 19일 강원에 1-0으로 승리하며 K리그 사상 최초로 통산 500승을 달성했다. 1983년 창단한 울산은 이듬해 프로축구에 참가하면서 첫 승을 올렸고 강원전 승리를 통해 34년만에 대기록을 세웠다.

FC서울 황선홍 감독은 지난 7월2일 전북과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K리그 감독 중 역대 최연소(만 48세 11개월 18일)로 150승 고지에 도달했다. 황선홍 감독은 2008년 3월9일 부산 감독으로 첫 승을 거둔 이래 343경기만에 통산

150승을 달성했다.

◇‘최다도움’ 염기훈...’최고령 득점자’ 이동국

염기훈(수원)은 올 시즌 전반기에 7개의 도움을 추가하며 수원 소속으로만 총 72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이는 K리그에서 원클럽 소속 최다 도움 기록이다. 기존 기록은 신태용 현 국가대표 감독이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성남 일화에서 기록했던 68개였다.

염기훈은 6월28일 대구전에서 69개, 70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마침내 신태용 감독의 기록을 넘어섰다. 또 염기훈은 현재 개인 통산 9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 역대 도움 기록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역대 도움 2위는 FC서울에서 뛰었던 물리나가 기록한 69개다.

전반기 최고령 득점자는 전북의 이동국(1979년 4월 29일생)이다. 이동국이 지난 23일 서울을 상대로 기록한 골은 38세 2개월 24일 만에 올린 득점으로 기록됐다. 프로축구 역대 최고령 득점 기록 보유자는 김기동(2011년 7월 9일, 39세 5개월 27일 당시 포항 소속)이다.

최연소 득점자는 수원의 유주안(1998년 10월 1일생)이다. 유주안은 지난달 25일에 강원을 상대로 최연소 득점(18세 8개월 24일)을 기록했다.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 보유자는 이현승(2006년 5월 10일, 17세 4개월 25일, 당시 전북 소속)이다.

올 시즌 전반기 최단시간 헤딩골은 서울의 고요한(170cm)이 지난 19일 인천을 상대로 기록한 골이고, 최장신 골은 전북의 김신욱(196cm)이 차지했다. 김신욱은 울산과 상주를 상대로 프리킥골을 한 골씩 넣으며 헤딩 뿐 아니라 발에도 능한 선수임을 입증했다. 뉴시스

막판 힘 빠진 박태환, 세계수영 자유형 200m 8위

주종목 아닌 자유형 1500m남아...입상 힘들 듯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8·인천시청)이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박태환은 28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7초11로 전체 8명 중 8위에 그쳤다.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4위로 아쉽게 메달권에 들지 못한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도 3위 내 진입이 무산됐다. 자유형 1500m를 앞두고 있지만 주종목이 아닌 만큼 이번 대회에서의 입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레인에서 경기를 펼친 박태환은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전략을 택했다. 박태환은 초반 50m를 4위에 해

당하는 24초80으로 통과했지만 이후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100m 지점에서 최하위로 밀려난 박태환은 순위 변화 없이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마지막 50m 기록은 28초02에 그쳤다.

1분47초11은 준결승에서 찍은 1분46초28보다 1초 가량 뒤진 기록이다. 컨디션 조율차 지난달 출전했던 세테 클리 국제수영대회에서의 1분46초89에도 못 미쳤다.

과거 박태환을 지도했던 박석기 감독은 “스트로크의 길이가 너무 짧다. 손이 허벅지를 끌까지 스키면서 밀어내야 하는데 거의 옆구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감독은 “50m부터 나가기 보다는 체력을 내놔야 했다. 전반에 서두른 것이 후반에 부담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박태환은 오는 29일 자유형 1500m에서 이번 대회 마지막 질주에 나선다. 금메달은 쑨안(중국)에게 돌아갔다. 쑨안은 1분44초39의 아시아 신 기록으로 자유형 400m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2연패를 노리던 제임스 가이(영국)는 1분45초36으로 5위에 머물렀다. 뉴시스